부르고뉴 최고의 포도밭, 비뇨블 데 까보뜨

Vignoble des Cabottes는 도멘 유제니를 소유한 아르테미스 도멘이 2025년 부르고뉴에 설립한 도멘입니다. 3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부르고뉴의 명가 부샤 페레 에 피스의 포도밭을 두 도멘으로 나누면서, 부샤는 대표 와인 '본 뒤 샤또'를 중심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비뇨블 데 까보뜨는 꼬뜨 드 본의 그랑 크뤼와 프리미에 크뤼 중심의 포도밭을 맡았습니다.

37헥타르 가운데 32헥타르가 부르고뉴의 최상위 등급인 그랑 크뤼(10헥타르)와 프리미에 크뤼(22헥타르)입니다. 부르고뉴 최고의 화이트 와인 산지로 꼽히는 몽라쉐를 비롯해 슈발리에 몽라쉐, 꼬르통 샤를마뉴, 르 꼬르통 등의 그랑 크뤼와 본, 뫼르소, 볼네의 주요 프리미에 크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랑팡 제쥐, 1220년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끌로 드 라 무스, 끌로 생 랑드히처럼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본의 밭들도 까보뜨에 속해 있습니다.

양조는 2003년부터 부샤에서 이 밭들을 다뤄온 Frédéric Weber가 맡고 있으며, 포도밭은 유기농으로 관리하면서 바이오다이나믹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출범 전인 2023년 빈티지부터 까보뜨 이름으로 선보인 와인들은 균형과 우아함,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화이트는 섬세한 에너지와 산뜻한 미네랄 풍미, 깊은 향을, 레드는 고운 탄닌과 섬세한 질감, 긴 여운을 보여줍니다.

도멘명 '까보뜨'는 부르고뉴 포도밭 곳곳에 서 있는 작은 돌 오두막을 뜻하며, 1997년부터 만들어 온 와인 '슈발리에 몽라쉐 라 까보뜨'에서도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오랜 포도 재배자들의 쉼터였던 까보뜨는 재배자와 포도나무, 그리고 세월을 잇는 변치 않는 유대를 상징합니다.

비뇨블 데 까보뜨 볼네 프리미에 크뤼 레 까이에레
Vignoble des Cabottes Volnay 1er Cru Les Caillerets

타입	레드
원산지	프랑스 > 꼬뜨 드 본 > 볼네
와이너리	비뇨블 데 까보뜨 (Vignoble des Cabottes)
포도품종	피노 누아 (Pinot Noir) 100%
용량	750ml
음용온도	15 ~ 16℃
음식궁합	오리고기, 양갈비, 안심 스테이크



'까이에레를 갖지 못한 자는 볼네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Les Caillerets는 볼네를 대표하는 프리미에 크뤼입니다. 까보뜨의 레 까이에레는 1775년부터 이어져 온 3.09헥타르 규모로, '앙시엔 퀴베 카르노(Ancienne Cuvée Carnot)'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돌이 많고 척박한 석회질 점토에서 자랍니다. 손수 확한 포도를 약 40%의 홀 클러스터와 함께 발효한 뒤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약 20개월 숙성하며, 뉴 오크는 약 40%를 사용합니다.

맑고 선명한 루비빛을 띠며, 블랙베리와 자두 같은 검은 과실 향에 카카오의 쌉싸름한 향이 어우러지고, 은은한 오크 향이 올라옵니다. 입안에서는 잘 익은 블랙베리를 먹는 것처럼 진하고 촉촉한 과실 맛이 가득 퍼집니다. 마지막에는 짭조름한 맛이 남으며, 오래 숙성할수록 더 좋아질 잠재력을 지닌 와인입니다.

진하고 촉촉한 블랙베리 풍미 덕분에 오리 가슴살 구이와 특히 잘 어울리며, 표고나 송이 같은 버섯 구이와도 좋은 궁합을 보여줍니다.